

2023. 11

머로우 소달리 코리아 뉴스레터

ISS POLICY SURVEY 결과 발표

지난 31 일 ISS가 의결권 행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대한 설문은 지난 9월 투자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ISS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239 곳의 기관투자자 또는 투자자 유관기관, 216 곳의 기업 및 유관기관, 기타 비투자자 응답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 각각 205 곳, 212 곳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침 개정 설문에서는 한국 시장 지침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어 국내 기업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설문 주제는 중대한 기업지배구조 우려나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 검찰의 기소 또는 유죄판결,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 이사를 표현하는 “문제 이사”와 해당 “문제 이사”가 계속해서 재직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 문제 이사의 사임 또는 해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조치 동료 이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부터 적용되고 “문제 이사”는 물론, 임기가 일정 기간 이상 겹치는 모든 이사가 “비조치 동료 이사”로 분류되어 반대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들 이사들이 사안과 무관한 다른 회사의 이사후보로 상정되었을 때에도 반대사유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무척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설문은 위 지침에 ‘일몰조항’을 적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아래 설문 문항과 결과를 요약하였습니다.¹

- 일몰 조항을 도입한다면 적절한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
 - 투자자들의 경우 일몰 조항의 적용을 반대하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 ‘비조치 동료 이사’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모든 이사에게 적용하되 이사회가 충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응답은 17%의 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기업 등 비투자자 응답자의 경우 해당 답변이 2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몰 조항 도입에 찬성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값은 43%로 일몰 조항 적용을 반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 앞서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일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중복 가능)
 - 내부적인 진상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조치, 투자자 인게이지먼트와 투자자 피드백의 공개가 각각 70%, 66%, 51%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 일몰 조항을 적용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가 적절한가?
 - 여기서도 일몰 조항의 적용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투자자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소 시점으로부터 3년, 6년, 9년의 선택지 중에서는 6년 (15%), 3년 (13%), 9년(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아 너무 긴 일몰 기간은 오히려 선호하지 않는

¹ 문항별로 참여한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응답결과는 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 투자자 응답자가 23%에 달한다는 점이 눈에 띄니다. 기업 등 비투자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3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

ISS의 “문제 이사”와 “비조치 동료 이사” 지침은 그 파급력이 매우 크고 한 번 적용이 되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 설문에도 포함되어 반가웠습니다. 특히, “문제 이사”의 해임 조치 외에 다른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문 결과를 보면 투자자들은 일몰 조항 도입에 아직은 회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결과이지만, 지난 2019년 해당 지침의 도입에 앞서 실시한 설문에서 “기소 등 중대한 지배구조 우려 또는 실패”의 적용 기간(look-back period)에 투자자 응답자의 65%가 별도의 적용기간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부분 완화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ISS는 11월에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응답 결과를 고려할 때, 기존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절대 다수가 일몰 조항 도입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찬성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우선 초안을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투자자들과의 인게이지먼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투자자와의 직접적인 인게이지먼트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인게이지먼트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묻는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설문 대비 투자자의 인식이 완화된 데에는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들이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과 인게이지먼트를 수행하고 확대한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투자자와의 인게이지먼트를 시작하는 데, 혹은 더 효과적인 인게이지먼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SS 지침 설문 결과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전문\(링크\)](#)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BOUT MORROW SODALI

머로우 소달리(Morrow Sodali)는 對주주 서비스 및 기업지배구조 전략 자문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경영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지를 극대화시키는 데 최적의 동반자입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기업지배구조 자문에서부터 ESG 컨설팅, 주주 소통 및 관여활동 지원, 자본시장 정보제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행, 주주행동주의 자문, M&A 등 구조개편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효과적인 지배구조 공시, 주주와의 신뢰 관계 구축,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지지 기반 극대화를 통해 고객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과 런던에 있는 본사를 포함하여 주요 자본시장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머로우 소달리는, 전 세계 약 80 개국에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1,000 여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적합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머로우 소달리가 유일합니다.

OUR SELECTED CLIENTS

머로우 소달리는 2019년 10월 한국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2021년 6월 법인 전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AMSUNG

 신한금융그룹

 SK telecom

 KB

 CELLTRION

 HYUNDAI MOBIS

 kt

 금호석유화학

 KT&G

 IDL E&C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SK square

 우리금융그룹

 JB금융그룹

 DB

 ORANGELIFE

 SM ENTERTAINMENT

 화 성

 NAVER

 DAELIM

 OSSTEM[®]
IMPLANT

 HELIXMITH

 DB하이텍

더 많은 보고서와 인사이트를 MORROW SODALI 홈페이지 (<https://morrrowsodali.com/insigh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S

<p>정성엽 <i>대표</i></p> <p>s.chung@morrowsodali.com</p> <p>T. 02 6001 3336</p> <p>M. 010 8170 1000</p>	<p>방문옥 <i>상무, 기업지배구조</i></p> <p>m.bang@morrowsodali.com</p> <p>M. 010 5744 0577</p>	<p>Kelly Kim <i>Senior Advisor</i></p> <p>k.kim@morrowsodali.com</p> <p>M. 010 2617 2242</p>	<p>장우진 <i>매니저</i></p> <p>w.jang@morrowsodali.com</p> <p>M. 010 9973 4711</p>	<p>최유신 <i>매니저</i></p> <p>y.choi@morrowsodali.com</p> <p>M. 010 9676 8325</p>
<p>Danny Hunt <i>COO APAC</i></p> <p>d.hunt@morrowsodali.com</p> <p>M. +61 449 677 550</p>	<p>Jana Jevcakova <i>Head of ESG Int'l.</i></p> <p>j.jevcakova@morrowsodali.com</p> <p>M. +61 452 061 779</p>	<p>Andrew Vasey <i>Director</i></p> <p>a.vasey@morrowsodali.com</p> <p>M. +81 3 4589 4781</p>	<p>Liz Park <i>Manager</i></p> <p>l.park@morrowsodali.com</p> <p>M. +61 424 646 234</p>	

Offices

NEW YORK
509 Madison Avenue, Suite 1206
New York, NY 10022
USA

LONDON
103 Wigmore St, Marylebone,
W1U 1QS, London
United Kingdom

SYDNEY
Level 24, 68 Pitt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BUENOS AIRES
Cap. Gral. Ramon Freire 1865
CABA – 1428 Buenos Aires
Argentina

FRANKFURT
Taunustor 1
60310 Frankfurt am Main
Germany

HONG KONG
2/F, the Hive Sheung Wan,
33-35 Hillier Street, Sheung Wan
Hong Kong

MADRID
Calle de Almagro 3
28010 Madrid
Spain

ROME
Via XXIV Maggio, 43
00184 Rome
Italy

TOKYO
Lattice Aoyama Sq. 2F, 1-2-6 Minami-
Aoyama,
Minato-ku, Tokyo, 107-0062
Japan

MELBOURNE
Suite 32, 367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PARIS
29-31 Rue de Courcelles
75008 Paris
France

PERTH
Level 9, 190 St Georges Terrace
Perth, WA 6000
Australia

SAO PAULO
Av. Brg. Faria Lima 1485, 1º e 2º
andares
Itaim Bibi, São Paulo - SP, 01452-002
Brazil

SEOUL
37F, 517,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Republic of Korea

STAMFORD
333 Ludlow Street, 5th Floor, South
Tower
Stamford, CT 06902
USA

TORONTO
Brookfield Place, 181 Bay Street,
Suite 2860
Toronto, Ontario M5J 2T3USA
Canada

Local partners
BEIJING
MEXICO CITY
SAO PAULO